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9 호

2011년 2월 10일

발행인: 변 주 선

편집인: 서 한 생

home page:

www.snuasa.or.kr

e-mail:

snuasa@hanmail.net

100-130 서울 중구 순화동 215 비버링 빌 1807호 전화: 026399-6500 / 02720-8116 FAX: 02720-8117

‘2010 송년의 밤’ 대성황



교사의 기(氣)부터 살려야 한다.

盧 在 賢 (國語·77)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난 9월 독일의 한 행정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니더작센주(N)의 김나지움(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다니는 한 학생과 부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 학생은 프랑스어 시험에서 수·우·미·양·가 중 '양'에 해당하는 성적(4.41)을 받았다. 김나지움에서는 주요 과목에서 두 개의 '가'를 받으면 유급하며, 이 학생은 수학에서 '가'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간신히 유급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회의를 열어 학생의 프랑스어 성적을 '가'로 떨어뜨렸다. 유급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유는? "학과목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상급학년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학생의 성적이나 학습태도가 학년 초보다 학년 말에 더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졸지에 유급당한 학생과 부모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교사는 산술적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을 평가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학습·능력 발달사항을 고려한 교육적 책임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시험 결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구태여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일부러 성적을 깎아 유급시키므로 말짱을 자초할 교사는 찾아보기조차 힘들 것이다. 독일 교사와 한국 교사 사이에는 권위와 재량권, 신뢰도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교육적' 일까. 나는 독일 교사들이 당장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해당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사들은 피곤하다. 정권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장안 해' 교사를 몰아질 생각부터 한다. 물론 교사평가를 떠나서는 전교조의 조직이거주, '오장동'과 성수행 교사로 대표되는 몇몇 교사들의 입찰로 안 그래도 '침범봉'이라는 시샘을 품고 있던 일반 국민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진 탓도 크다. 최근에는 경기도·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법금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사기와 재량권이 한층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제법금지에 따른 대책이라며 내놓은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현실적 조항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있다. 각각한 학생에게 '일과를 시작하기 전 노래부르기, 참신, 요가를 시킨다'든지, '학생이 운주나 휴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운주 또는 휴연 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지도한다'든지, '범죄 과 파이는 성장기인 청소년의 두뇌 건강을 해치므로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같은 조항들이다. KBS 2TV의 '개그콘서트'에서는 "지각한 학생에게 노래시키면 '누르스타 K'처럼 '지각스타 K'가 나오는 거냐. 만약 머리 엄격한 학생이 술 먹고 지각하고 선생님에게 대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비꼬기도 했다.

'꿈의 학교, 행복토 교육'을 지향한다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정책이 왜 조롱거리로까지 전락했을까. 나는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감각이 결여된 탓이라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의 새 교육지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데,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권리와 함께 의무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온통 학생의 권리만 부추기거나 청소년인권운동단체라는 곳에서 "청소년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연애 상담' 학칙을 폐지하라"는 웃지 못할 요구까지 하는 것이 아닐까.

전심으로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예스는 교사가 대다수다. 그들의 권위와 사기를 되살릴 정책을 속히 마련하라. 학생에게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엄중함도 가르쳐야 한다. 지금처럼 교사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생활지도 수단조차 없는 상황에서선 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황당한 사태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선생님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우리려고 누리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중앙일보 2010.12.3(금) 34면
'노재현의 시사각과 길림'에서)



■ '우정·열정·연정' 의 승년모임성황

동창회는 지난 11월 29일 그랜드 연버서더 서울호텔에서 2010년 승년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朴振燾(국어64, 총무부회장) 동문의 사회로 시작한 이 모임에는 卞柱植(영어60) 동창회장을 비롯한 朴魯植(사외50), 洪性謙(가정50), 裴信主(사외51), 洪魯植(사외52), 鄭泰亨(역사53), 鄭善相(국어53), 洪學準(화학53), 尹慶老(사외53) 등의 원로 동문으로부터 韓民豪(생물96), 郭憲正(국어96) 동문까지 180여 명이 참석하여 노·장·청년(壯年)의 동문예를 나누었다.

식전 행사로 이어진 씨가 진주 교향부(김수하)를 보여주어 흥을 돋우고, 이어서 卞柱植 회장이 "동창회의 기본은 '참'에 있다."고 강조하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치고있던 지금의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도(師道)를 확립하려고 애써 오신 동문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덧붙여 "사범대학의 정통성을 지켜온 일선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아끼지 말자"고 의미 있는 인사말을 하였다. 박연수(역사68,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동문이 대독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임명수 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十世一飯)의 정성으로 장학사업 건립에 적극 참여 노력해 주셨던 동문 사회가 봉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모교 원년 찾기 운동'으로 "서울대는 종합대학교로 1948년 개교했지만, 학문분야에 따라 대학교육의 원년이 1895년에 시작됐으므로 1895년을 '개학 연도'로 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보했으며, "1895년은 여러분이 풍부한 사범대학의 뿌리인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가 설립된 해이기도 하다."고 축사를 하였다. 또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안양주(체육75) 동문에게 새 회장은 직접 축사의 말씀을 하면서 축하의사를 수여했다.

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COE 합창단(단장: 이병철(수학65))이 격려에서 '기후에야부스'를 부르면서 무대에 올라,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우정의 노래', '비취섬을 축가로 불렀다. 비취와 결해서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감동적이었다. 이 하모니가 사범대학 동문에게 끝고부 되지도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스며들었으면 하는 동문들의 바람이 들리는 듯했다.

李相淵(교육56) 동문의 건배 제의와 케이크 커팅에 이어, 모교 학장인 金鍾旭(지리71) 동문이 '기초사범교육 협력센터 신축', '사범대학도서관 건립', '제2 사대부고 신설'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각 학과와 각 단계를 소개하였는데, 체육교육과가 최다참석학과로 포상을 받았다. 서울유대 출신 테니 김성복 씨의 '정상에 삼오리'와 '꺼리' 특강은 다소 웅성거리던 장내를 고귀적 문화의 마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沈美惠(체육64)와 曹錫禧(체육85)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친교의 시간에는 동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했다. 여러 동문들이 협찬한 경품을 추첨할 때 진동경이 벌어져 흥을 한결 돋우었다. 일찍 귀가한 동문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남아있는 동문들의 아쉬워하는 웃음소리가 장내를 메웠다. 이날 千載英(교육75) 동문이 협찬한 묵북은 朴慶久(국어56), 朴禮順(가정60) 동문이 당첨되었고, 특별히 부부동반한 朱嘉眞(물리57)·李貞玉(생물58), 鄭海文(생물58)·金玉璣(생물58), 金基光(화학64)·李美愛(화학67) 동문에게 이를 1개씩을 수여했다. 裴柱植(영어60) 동문이 협찬한 고가의 한우를 장수기는 鄭康順(체육63) 동문에게 돌아갔고, 卞柱植 회장이 협찬한 125만원 상당의 최신 '64채널 PET-CT' 음의 김진권은 李東植(영어72) 동문에 이어 朴性謙(사외80) 동문이 당첨되었으나 심배에게 수상을 양보하여, 洪善姬(영어61) 동문에게 행운이 돌아가 참석해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흐트라게 하였다.

친교 시간 내내 2010 동창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청년인의 어제 오늘 내일', '우정·열정·연정의 추억을 더듬는다', '사랑은 더하고 마음은 빼고 기쁨은 곱하고 슬픔은 나누시다' 등으로 구성된 영상이 나와 동문들의 눈길을 모았다. 高麗榮(영어65) 동문과 김영희 씨가 이대명 품의 한양부(韓良興)를 열연해 승년 모임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였다.

(글: 박경현(국어64-총무부회장))

■ 자랑스러운 서울 師大人 제3회 '淸冠大賞'

사도상 李圭碩 · 학술상 金俊麟 · 공로상 金南幹

2011년도 제3회 자랑스러운 서울師大人 '淸冠大賞'수상자로 사도상에 李圭碩(지구과학60), 학술상에 金俊麟(생물50), 공로상에 金南幹(국어47) 동문이 선정되었다.

본 동창회 청관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李相淵 전 교육부총리)는 지난 12월 13일 '淸冠大賞'심사위원회를 갖고 심사를 한 결과 위의 3분을 선정하였다.

사상은 3월 14일 18시 경기충회에서 하계 된다.

◆ 사도상 (중등)

李圭碩 (지구과학교육 1966~197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

· 학예 및 명예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박사 /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敎師·校監·敎長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연구사·연구관·장학관 등 35년 근무

· 주요 공적

- 교육부 제직(84.3~94.8) : 교육과정의 체제 정비 및 학문 중심교육과정의 기반 조성,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도시 개발

- 월곡중학교 교장(94.9~98.9) : 과학교육평가 선도학교 운영, 서울시교육청 체육시범학교 운영, 학교경영 우수학교 선정기어

- 교육과학연구원 본부장(98.9~99.9) : 과학교사 연수, 고교과학영재교육원 기반 조성, 일선학교의 특기 적성반 운영

- 상경중학교 교장(99.3~03.3) : 진교조합법제 후의 교직원 의 인화에 성공, 7차 교육과정 재개발등 시범학교 성공수행, 창의 학교 경영으로 학교평가 최우수교, 학교경영 우수교

로 선정

- 강서교육청하부국장 (03.3~08.8)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시범영양 성공적 성과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08.9~06.9) : 교수학습지원센터 개관, 진학진로센터 개설, 과학교육활성화추진 및 과학전시관 개관, 수업지원운영단 활동으로 교육혁신대상 수상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06.3~07.2) : 평생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학원의 자율정화 가능 지표 개발
- 서울고등학교 교장 (07.3~08.2) : 도서관활용교육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교경영 전환 세신 박사, 전국최우수고교교과부 수상
-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09.7~현재) :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학교문화개선, 교육과정 기획,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개신 등 다양한 교육정책 입안하여 성공적 성과 거둠
- 학술연구활동 : 50여편의 논문을 학회지, 세미나 발표

◆ 학술상 (대하)

金修鎭 (생물교육과 1950~195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 학제 및 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공주사대 전임강사, 교수 (58~69) /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69~83) / 미국 미네소타 대학,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 객원교수 / 문교부, 농진청, 중앙정미기술연구소 위원 / 한국식물학회, 생태학회, 생물과학회립회 회장 / 영국 British Ecological Society, 미국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네덜란드 Society for Restoration Ecology 회원

• 주요저서

- 다윈의 생애와 사상 - 식물생태학개론
 - 생태학개 - 한국인상사(人象史)
 - 한국생태학 100년(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대나무(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 상성비(대한민국 학술원 기조학문특성 우수학술도서)
- 이밖에 학술논문 200여편

• 주요공적

- 金修鎭 통문은 지난 50여 년간 植物의 生理生態學과 生態學 生態學을 연구하면서 生態環境에 專攻하였고, 원단적인 내용의 著書를 출간하였다.

1962~1968년에는 세계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韓國 人象의 생육에 대하여 日光量과 物質生産의 관계를 연구하여 인상의 最大生産性을 위한 飽和光度, 相對受光度 및 最大光合成率을 밝혔다. 인상의 無機氮素量 吸收量과 生長解斷을 밝힘으로써 인상의 生理生態를 闡明하여 그 科學的 栽培方法을 確立하였다.

1970~1979년 사이에는 森林의 生産構造와 物質生産 및 物質循環을 연구하여 여러 溫帶地方의 森林生産性과 비교하여 한국 삼림의 構造와 機能의 특성을 밝혔다.

1980~1989년 사이에는 한반도의 남-서 해안에 넓게 펼쳐져 있는 海岸과 河口의 鹽沼地 生態學의 構造와 機能, 특히 底土의 물리화학적 특성, 해면 생물의 물질생산, 물질순환 및 에너지 流轉을 연구하여 濟南島의 特殊한 생태적인 鹽沼地 生態學을 確立하였다.

1990~1995년에는 石灰岩地帶 植物群叢의 물질생산과 물질순

환을 측정하여 석회암지대 생태계의 특성을 밝혔고, 아울러 露部 叢의 酸性비를 측정하는 한편 도시와 공업단지 주변의 산성화된 土壤의 特性和 산성비 被害를 받은 植物에 돌로마이드를 시키며 여도가 증대되고 식물체 내에 무기영양소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어 酸性降下物에 耐性인 生態系의 復元 過程을 연구하였다. 이상의 研究結果를 130여편의 학술논문으로 집필하여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근 20회에 걸쳐 國際學術會에서 발표하였다.

金修鎭 통문은 23편의 저서를 上梓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한국에 작성하는 대나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나무'라는 저서를 上梓하여 科學技術處의 優秀學術圖書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한국인에 의하여 1900~2000년에 발표된 3,000여 편의 생태학 논문을 정리하여 植民時期代(1900~1945), 準植民時期代(1946~1978) 및 成長時期代(1977~2000)로 구분하여 韓國 生態學 100年을 체계화하는 著書를 출간하여 文化情報部의 優秀學術圖書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韓國에서 酸性비가 내리면서 生態系를 훼손시키는 새로운 災殃을 규명하여 '상성비의 저서'를 출간하여 대한민국의학연구소 基礎科學(優秀學術圖書)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地理環境化에 관하여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저술 중에 있다.

金修鎭 통문이 배출한 20여명 문하생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중에 있으며, 1997년 이후 한국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 공로상

金海濤 (국어교육과 1947~1951)

시인, 국가원로 자문회의 공동의장, 한국예술원 회원

• 주요경력

- 방승문학진흥회의 이사 / 한국방송통신사
- 수명여재대학 교수(1954~1992)
- 작 품

주로 연가풍(戀歌風)이면서도 신장적 삶을 고백하는 시를 썼다. 일본 규슈에서 여학교를 마치고, 195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사범대학 재학 때인 1950년 <연향신문>에 <성숙> - <잔상 殘象>을 발표하여 문단에 나왔다. 첫 시집 <목숨>(1953)에서는 인간성의 긍정과 생명의 염소(戀戀)를 바탕으로 한 정열을 읊었으며, 제2시집 <나이의 향음>(1955)에서부터 종교적 사랑과 윤리를 썼다. 그후 시집 <나무와 바람>(1958) - <경멸의 기(氣)>(1960) - <영혼과 향>(1973) - <김남조시집>(1983) - <너를 위하여>(1985) - <여나 주서서 주여>(1988) - <떠나는 고향 끝이 없는 사랑>(1990) 등을 펴냈다. 시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가을의 밤에 정선과 윤리이다. 인간 내면의 목소리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노래했고, 언어의 조박을 통한 유연한 리듬과 감 폭인 시형의 아름다움은 읽는 이에게 친숙한 느낌을 준다. 1958년 시집 <나무와 바람>으로 자유문협문학상, 1963년 시집 <풍인의 음악>으로 오월문예상, 1975년 시집 <사랑의 초새>로 한국시인회상을 받았고, 1984년 서울특별시문화상을 받았다. 수필집으로 <나팔꽃의 빛과 노래>(1971) - <기억하라 아침의 약속을>(1987) - <그대 사랑 앞에>(1987) - <그녀 내 영혼을 부르게든>(1988) 등을 펴냈다. 시집에는 <목숨> - <나무와 바람> - <김남조 시집> - <사랑의 초새> - <동행> - <너를 위하여> - <겨울의 날> 등 다수가 있다.

(5면으로 계속)

■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 논의 학술 대회

2010년 11월 10일(수) 13시 30분, 10-1동 101호 대강당에서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교육과정 기술 수능 개편안에 대한 심층 논의 및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 절강대학교 학장단 학교 방문

2010년 11월 15(월)~18(목), 중국 절강대학교 학장단이 모교 부설학교 방문 및 사범대학 세계외국진위위원회와 국제교육협력 포럼을 진행하였다.



■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종강식

2010년 11월 26일(목) 19시,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우리 대학에서 위탁운영하는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종강식을 가졌다. 강의 수강 누적인원은 4,500명이다.

■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10년 12월 13일(월) 호암고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자랑스러운 사범대인상은 이득현 명예교수, 사범대학 발전공로상은 장승식 이사장에게 수여하였다.



■ 會長 動靜 (10.11.1.~11.1.31.)

- 10. 11. 23. 청관학회 이사회 개최
송년의 준비위원회 개최
- 11. 29. 2010년도 '송년의 밤' 행사
- 12. 3. 자랑스러운 사범대인상 심사위원회 참석
- 12. 9. 청공회, 청암회, 청연회 합동 송년회
- 12. 12. 사범대학 송년회 참석
- 11. 1. 5. 영이교육과 동문회 신년회 개최 참석
- 1. 8. 교육학과 동문회 신년회 개최 참석
- 1. 13. 청관대상 운영위원회 개최

■ 동창회 來訪 人士 (10.11.1.~11.1.31.)

- 李重鎔 敎育 - 53) 한국영중학연구소 소장
- 李相胤 敎行 - 56) 본회 고문

- 金在休 歷史 - 57) 전 여성동문회 회장
- 鄭大純 生物 - 58) 전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
- 李瑞勳 敎政 - 59) 전 복사출판 교장
- 俞千根 敎育 - 60) 전 구원교 교장
- 李壽子 敎政 - 60) 명지대 명예교수, 본회 감사
- 朴性休 敎育 - 61) 단국대 석좌교수
- 李悅禪 敎育 - 61) 미래연합 당대표
- 林東浩 敎育 - 61) 전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상무
- 許禮秀 社會 - 61) 전 관광출판사 본부장
- 金美吉 敎育 - 62) 본회 감사
- 李洋龍 敎育 - 62) 서우사
- 鄭濟善 體育 - 62) 한국스포츠심리 연구원 원장
- 金慶休 敎語 - 63) 전 중앙대 교수
- 朴和男 敎語 - 64) 전 시원대 교수
- 朴東賢 敎語 - 64) 본회 총무부회장
- 서한성 敎語 - 64) 일대방송 회장
- 金榮愛 生物 - 64) 전 대저공 교장

- 江美惠 體育 - 64) 전 현출판 교장
- 高慶賢 英語 - 65) 영이교육과 동문회장
- 崔美子 英語 - 64) 여성동문회 총무
- 崔基誠 體育 - 65) 여성동문회 부회장
- 蔡德福 敎育 - 67) 서울여대 교수
- 金美神 敎語 - 67) 전 캐나다포도밭대 교수
- 崔賢聖 社會 - 67) 전 강원대 총장, 사회교육과 동문회장
- 柳子孝 韓語 - 68) 국제오대리 3650지구 사무총장
- 方在旭 生物 - 68) 충남대 교수, 생물교육과 동문회장
- 李炳好 英語 - 70) 서울국제교 교장
- 徐龍錫 地理 - 70) 인천 삼곡교 교장
- 朴美赫 英語 - 76) 변호사
- 蘇振源 英語 - 77) 경성신문 선임기자
- 姜賢九 體育 - 78) 신원교 교사
- 全相學 生物 - 79) 모교 기획부회장
- 李南遠 地理 - 83) 한국로권여가대비

<4면에서 계속>

• 주요공적

- 한국의 대표 시인 : 1950년 데뷔 이후, 인간성과 생명력을 표현하는 시풍, 가톨릭적 사랑의 세계와 윤리의식을 표현하고 시를 썼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며, 만해대상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받았다.
- 중등학교 교사, 대학교수로 교육 외길을 걸다 : 모교 졸업 후 마산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성균관대학교 강사를 거쳐 1954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

직했다. 허영자 시인, 신달자 시인 등 한국문단의 거목들을 길러냈다.

- 모교 사랑과 모교 발전에 헌신 : 한국 문단의 사범대학 출신 문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한국현대시 박물관, 김계정 판정(국어과 출) 등 어려운 통문 문인들을 남모르게 돕고 계신다. 봄나눔대로 모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教育學科

◆ 교육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교육학과는 11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10년 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새로운 동문회장을 선출하였다. 현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桂호(72) 동문이 제14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재현

◆ 교육학과 동문회 '신년 교례회' 개최

교육학과와 교육학과 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년 교례회'가 지난 1월 8일(토) 본교 소담마루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육학과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학과의 원로교수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고 덕담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다. 올해에도 김중서, 정병모, 정원식, 이상주 선생님 등 열 분 이상의 원로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었고, 학과교수 및 각계각층의 동문 및 대학원생에게 이르기까지 1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소식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며 새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즐거운 만남의 장을 가졌다. 특히 원로교수님들의 다양하고 은혜로운 덕담을 통해, 올 한해에도 교육학과 동문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한해를 보낼 수 있기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교육학과 신년교례회는 1월 첫째주 토요일(2012.1.7)에 본교 소담마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과 교수님 및 대학원생, 학과의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주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1년도 행사 안내

- 모교방문의 날: 5월 5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서울대 벚꽃길 위쪽 통산로 입구
- 정기총회: 11월 중,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동창회 소식 발간: 5월(제58호), 9월(제59호) 발간 예정

國語教育科

◆ 동문회 예비신입회원 환영 만찬

지난 11월 19일(금) 국어교육과 학부 4학년생들과 함께 '예비 신입회원 환영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총대식 회장을 비롯한 국어교육과 동문회 임원들과 구분관 학과장, 20명의 학부 4학년생들이 참석하여 만찬의 자리를 빛냈다. 졸업을 앞둔 후배들과 함께하여 동문회의 의미를 견고히 소속감을 심어 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 2011년 신년하례식

국어교육과 2011년 신년하례식이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일(월) 오후 3시에 본교 7층 스타이트 홀에서 진행되었다. 신년하례식은 개회사, 국인외배, 단체 세배, 동문회장 신년 인사, 원로 동문 덕담, 축하 공연의 순으로 진행된 1부와, 정기 총회로 진행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정기 총회에서는 2010년 동문회 경과보고와 회계 보고 및 감사 보고가 진행되어 국어교육과 동문회의 한해 살림살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국어교육과인들이 함께 모여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을 향해 나아가는 뜻 깊은 자리였다.



英語教育科

영어교육과 동창회(회장: 고윤길, 65)는 매년 후배들의 학업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15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학과에 지급하였으나, 2011년부터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우선 동창회원을 (교장단), (기업체단), (교수단)으로 구성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100만원 씩 총 300만원을 모금하였다. 또한 영어과동창회 장학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 소식에 감동한 변주신 사대동창회장과 영어교육과 61학년 박영민 동문께서 각 100만원의 보태어 주시어, 총 700만원의 장학금이 1월 5일



(수)에 열린 2011 영어교육과 통상의 신년총회에서 모교 학과에 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 모집의 주된 특징은 참여인원이 50여명에 이르는 다수/소액참여라는 점이다. 영어교육과 통상회는 동일한 성격의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獨語教育科

독어교육과 통상회(회장: 김명근, 71)는 이동승 선생님 팔순잔치를 겸한 통상총년회를 2010년 11월 3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재학생부터 은퇴한 동문들까지 자발적인 축하공연을 이어갔으며, 행사를 앞두고 통상들이 모은 1천만원의 해외여행 기금을 선생님께 신물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이 중 일부를 통문의 기금으로 쾌척하였다.



社會教育科

사회교육과 통상회(회장: 최현집, 67)는 지난 1월 5일(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9학번부터 07학번까지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모교의 은사님인 윤용택, 손봉호 명예교수님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歷史教育科



역사교육과(회장: 박성영, 68)는 지난 1월 7일(금), 호암교수회관에서 허승일, 김광수, 이원순, 윤세철 원모교수님을 포함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역사교육과 신년모임을 가졌다.

倫理教育科

윤리교육과(회장: 윤건영, 83)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윤리교육과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은 지난해 학위를 받으신 동문들에게 학위패를 전달하고,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선배님들의 덕담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物理教育科

물리교육과는 지난 12월 4일(토),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존회원과 신입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차기 회장으로 이상목(87, 서울대 교수) 동문을, 부회장으로 최은형(88, 한국국외대 교수), 박문수(74, 서울과학전지산업 기획조사부장) 동문을 선출했다. 이날 2009년도 학계 및 2010년 통계 하사 졸업 예정자 26명의 신입회원을 소개하고, 물리교육과 통장보고를 했다. 사은행사로 본과 재학생을 위해 장학금 1억원을 발간기금으로 출연해주신 신희명(49) 명예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소정의 기념품 및 분부 현관 실사증정을 하였다.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2010년도 제작 동문의 수첩 배부를 했으며 수첩은 계속 수정 보완 예정이다.



이 성 목



生物教育科

◆ 생물교육과 76학번 졸업 30주년 모임 및 학과 발전 기금 전달

지난 12월 3일(금) 여러 은사님들과 현 생물교육과 교수님들, 76학번 졸업생 15여명이 남미옥에서 76학번 졸업 30주년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졸업생들은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학과 발전 기금으로 쾌척하였다.



◆ 생물교육과 김준민 은사님 타계 (1914.4.12~2010.12.03)

생물교육과의 학담 김준민 은사님께서 2010년 12월 3일 오후 10시경 96세의 연세로 타계하였다. 김준민 은사님께서는 1914년 4월 12일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생하신 후 숭실전문학교 농학과와 동북제국대학교 이학부 생물학과를 1940년에 졸업하시고 1946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로 봉직하였다. 1986년~1988년 한국 식물학회 회장, 1978년 한국생태학회 창립, 초대 및 2대 회장, 1983년 한국자연보존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72년 4월부터 한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퇴직 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왕성한 저술활동과 강의 및 외부 활동을 하셨다.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는데 특히 93세의 연세로 2006년 '깎뿔에서 즐기는 과학'을 집필하시며 왕성한 노년장을 과시하였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동문 체육대회에 96세의 연세로 참석하시어 지난 예기를 장시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고인의 마지막 학과 활동이었다. 4·19 시국선언을 주도하신 교수로서의 공로로 2010년 12월 6일 서울유리 4·19로비에 안장되었다.

◆ 2011년 생물교육과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



지난 1월 7일, 2011년 신년모임 생애를 맞이하여 상정리제 2층 결미시홀에서 3분의 은사님(장남기, 정해문, 어주식 은사님)과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한 가운데 생물교육과 신년하례식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난해 타계하신 김준민 은사님에 대한 추도식을 가졌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북녘에 이어 김준호 동문과 생물교육과 동문회 회장인 방정욱 동문에서 추도사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地球科學教育科

지구과학교육과(회장 :

이규석, 66)는 지난 1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이규석 동문회장장과 최승연 학과장을 비롯하여 34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신년도 신년하례식을 마쳤다.



體育教育科

지난 12월 1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체육교육과 정기총회 및 송년간담회가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며 그 동안 체육회에서 주관했던 행사들을 감사 및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부용봉 공원과 계엄을 통한 경품 행사 등 다채로운 시간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알찬 시간이었다. 2011년 체육회장에는 고남호(89, 남부교육청 교육장) 동문이 선출되었다.



고 남 호



이 會報는 前 재 교 육 崔 容 準 數 · 61 入 會 長 의 厚 誼 로 費 用 全 額 을 出 納 하 여 刊 行 된 것 입 니 다.

이 겨울 밤 누가 “빈방 있어요”라고 묻는다면

柳岸津(淑·61)

시인, 서울대 명예교수

“아주 작은 시골학교 연극공연 빌리의 역할은 ‘빈방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내 방 쓰세요’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해마다 연말이면 나는 약간 모자란 빌리가 되고 싶다 모자란 듯 보여 오히려 더 생각 깊은 빌리가...”



“저런 사람 낚고도 여 낚았다고 좋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 데서나 술주정하는 사람, 신문에 나오는 범법자, 더 지주는 노숙자들과 미추졌을 때 동등, 때로는 육하고 싶고, 때로는 안타깝고 가슴 아파지면서도 볼수록 그런 말이 튀어 나오기도 한다.

누군를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없었을까만, 한 해의 끝자락이고 너무 추운 겨울일이고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자기 성찰이나 산다는 것에 대해 깊은 생각이 회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돌아오는 지하철 내내, 혼자 걷는 시간 내내, 정답 없는 인생철학에 붙잡혀 오만 가지 생각이 휘둘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문득 나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노숙자이자 술주정병인가 아닐까 하고 반성하기도 한다. 나도 양심적으로는 범법자가 아닌가? 문학적으로는 범법자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혼자서 하는 생각이 있다. 겨울 산하를 무작정 빙판하다가 더 벅어리 가득히 눈밭을 뒤집어쓴 채 겨우 찾아낸 시골 여인숙에 들어섰는데 주인이 나의 낭루한 행색을 눈길 걸아 훑어보고는 있는 방도 없다고 한다던... 그런데 문득 지나가던 중업원이, 그 집에 발붙여 굶은 일만 하는 천덕꾸러기가 “있어요, 내방 써요” 하고 말해준다면... 이런 풍상 끝에 다음의 소풍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데 가보세요/ 다들 없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좀/ 아시다시피 씨네이잖아요/ 만세(萬歲)의 (내) 부인과 눈길이 미추치자/ 아편나, 차고(車庫)밖에 없는데/ 거기러도 좀, 남편 뒤를 따르는 부인 등이다/ 내방 써요, 리는 깊은 옥청을 듣고 싶은/ 성탄전야(聖誕前夜)가 아니어도/ 비둘레 향이 아니라.’

내가 빈방 있습니까? 로 제목 붙인 이 소풍에는 배경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연말쯤 잠깐씩 떠오르곤 하는 어떤 일화 때문일 것 같다. 하도 오래전에 일어 출처도 잊어버렸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생각나곤 한다.

아주 작은 시골학교로서 전교생이 출연하는 성탄절 연극을 공연한다. 어느 학교에나 지적으로 약간의 발달지체나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있게 마련이다. 그 작은 학교에도 그런 아이로 빌리가 있었다. 빌리에게도 어떤 역할 하나는 맡아야 했다. 조금은 모자라는 이 빌리를 두고 선생님은 공리를 했다.

그러다 가장 간단해서 아주 쉬운 딱 한미디 대사만 외워서 말하면 되는 여관 주인 역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빌리를 연습시켰다. 무대 위에서 빌리는 성모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병을 구하러 온 성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하면 ‘없어요(No room)’라고 딱 한미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다.

은 마을 학부모들이 다 모인 가운데 어린이들 연극은 시작되었다. 드디어 남편 요셉이 낭신한 만석의 바를 인은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주인 빌리 앞에 섰다. 요셉이 방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어요”라는 빌리의 대사가 나올 차례였다. 그런데 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주인들은 모두 빌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역시 모자라서 대답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없어요”라고 여기 저기서 귀뜸해 주었다. 그래도 빌리는 연습 때와는 달리 만석으로 배부분 마리아와 요셉을 얼떨떨하게 바라보만 했다.

참다못한 선생님도 커튼 위에서 “빌리! 없어요 라고 해이지”라고 속삭였다. 그래도 빌리는 한참을 그대로 말없이 선 채 생각하다가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만석의 마리아와 남편 요셉에게 “내 방 쓰세요”라고 하지 않는다.

빌리가 성자(聖者)의 품성을 지녔는지는 모르나, 성자란 보통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모자라서 순한 보는 사람들로 바힐 것만 같다.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노라’에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한 구절도 같은 얘기 아닐까.

해마다 이맘때는 약간 모자라는 빌리가 되고 싶고, 빌리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도 듣고 싶어진다. 모자란 듯 보아서 오히려 더 생각 깊은 빌리, 나부터 빌리만큼만 모자라게를 바란다.

(조선일보 2010.12.29 5면 A33)

■ **李杜錫(國) 49** 서울대 명예교수

德憲勳章 51) 법은정치재단 이사장

지난 12월 13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송년의 밤에서 이두현 동문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사범대인상을, 장충식 동문은 사범대학 발전공로상을 받았다. 이날 조창섭 동문이 장충식 동문 대리수상을 했다.



■ **丘仁煥(國) 50** 서울대 명예교수

매천 황현 문화대상 수상

서울대 명예교수인 구인환 동문이 12월 4일, 한국지역문화인협회가 주관하는 '매천 황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매천 황현 문학상은 구한말 역사가이자 문장가였던 매천 황현 선생(1855~1913)을 기리며, 그 뜻을 이어 학문과 인품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鄭憲德(國) 54**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동승학술상 수상

정진권 동문은 제14회 동승학술상에서 교육용 기초한자 제정에 이바지한 공로로 동승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2일 서울 동승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 **林弘德(生) 59**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임홍조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11월 7일 오후 2시 출판문화관에서 '스마트폰 환경과 출판 콘텐츠 서비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 **李益勳(英) 64** 성명대 석좌교수

공통기술대의 개회

한국하버드연정학회의 회장인 이익훈(영어 64, 본회 부회장) 동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김석준, 전 국회의원)과 지난 10월 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각 학문의 정체성과 학문 간의 융합성이 깊게 논의되었다.



■ **金載勳(國) 66** 경희대 교수

2010 서울시 문화상 수상

김재훈 동문은 서울의 문화예술평대를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2010 서울시 문화상 문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10일(금)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었다. 서울시 문화상은 서울의 문화발전과 문화예술평대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1948년 제정된 이래 긴정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시상했다.



■ **樑子孝(佛) 68** 국제연립법 한국지회 부이사장

갈림모음집 출간

본회 대외협력부회장이인 유자효 동문이 갈림모음집 '나는 희망을 보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08년에서 2010년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쓴 갈림들을 엮은 것으로, DI의 추억, 미디어열, 4대강 등 지난날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 **安桓錫(體) 71** 전 인천시장

향우회 전국연합회 '국민통합 전국시도민연합회' 대표총재로 선출

11월 28일 전국 최초로 각 시·도별 향우회 단체(이북5도인과 해외교포단체 포함)의 전국 연합체 '국민통합 전국시도민연합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상수(전 인천시장) 동문이 대표 총재로 선출되었다. 안상수 동문은 "각 지역을 특색 발전시키고 지역 간 상생 발전으로 고질 병폐인 지역감정을 영구히 추방 할 것"이라며 "민간자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 **宋光憲(教) 72** 서울고대 총장

한국고원교육학회의 회장 취임

송광웅 서울고대 총장이 1월 5일 한국고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송 동문은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전국고육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 **郭晶煥(英) 72**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정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령

■ 金京會(韓·74) 전 서울시 부교육감

대한민국 나눔대상 특별대상 수상

김경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12월 8일 천장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나눔대상은 각 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부·기증 등 사회봉사에 앞장 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한국국제연합봉사단·나눔뉴스신문이 공동주최하고, 국회·한나라당·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동참 시상하고 있다. 송몽문은 행정직 출신으로 교육부 국장·학교정책실장 등과 서울시 교육감 직무대행을 역임하고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룡 자



이 병 호



조 구 석

■ 朴南基(韓·80) 광주교대 총장

교대총장협의회회장에 선출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이 1월 17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 李洪子(韓語·70) 서울시대부설여중 교장

李繼汗(英語·70) 서울국제고 교장

張益碩(韓語·76) 을지중 교장

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지정

1월 27일 제1회 교육엑스포에서 창의·인성교육 우수 학교로 지정, 교과부와 조선일보 공동명의의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 姜東秀(韓·81) 소설가, 국제신문 논설위원

제18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년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강동수 동문의 단편소설 '수도원 부근(중소설 2010년 북포 발표)'을 제18회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으로 정했다. 강 동문은 196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소설집 '몽유시인을 위한 변명'과 시사상문집 '가남자녀의 따따부부' 등을 펴냈다.



살풀이와 머스탱

高潤婁(英語·65)

영어교육과 회장

지난 1월 23일(일) 11시 경복고교 운동장 안쪽 끝대 뒷면에 머스탱 한 마리가 온 문물 다 덮고 눈발 속에 살풀이 시나위 곡을 들려주고 있다. 이 가락에 맞추어 소복에 하얀 수건을 든 여인의 비선발발림과 손놀림이 눈발 날리는 허공을 휘젓는다. 이 춤하여 '수건치기, 좌우치기, 까치발돋기' 기법으로 우리 가슴에 웅어리진 역을 풀이내어 금년한해 축구회원들의 무사고 운동을 기원하는 축구를법 시무식의 한장면이다.

경복축구를법 회장을 맡은지라, 매년 기계적 일률적인 시무식을 탈피하고자, 눈발 날리는 영하 8도 야외운동장 끝대에 돼지머리의 제단, 소복에 하얀 수건 든 여인, 그리고 나의 '머스탱'으로 색다르게 준비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구청장, 의회의장, 시·구의원 등 30여명의 내빈들과 우리 40여명의 축구를원들 모였었다.

백전 국회의원이 "저 차는 왜 저기 있오? 무슨 치료?" 라고 묻

길러 내빈 모두를 향해 "머스탱입니다. 저 차의 shaker 500에서 살풀이곡을 운동장에 뿌리고 있지요." 내빈들 모두 "와! 저차 너무 멋있어요.", "저 차 타는 회장님도 너무 멋있어요.", "오늘 시무식도 전무후한 회회고 시무식이었음."라며 한바다씨 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백전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 시무식에서 너무 강령 받은지라 경복고 구장에 인조잔디시설 국고보조 타일러하니 한번 보자고 / 요게 다 '머스탱' 덕이라.....



카네기 어머니에게 배운 배려 · 공경 · 친절의 효정신이 한 젊은이에게 가져다 준 성공과 행복

高永基 體育·72

유리더십연구소 소장

최근 지하철 때론 때론(때때) 인간으로서 미
평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을 말한다. 경희대 때론너, 인천 때론너 등 때론
너 시리즈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동영상이
로 급속히 퍼졌고, 언론에 기사로도 나왔다. 죽
나이 어린 여학생이 인간으로서 미평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노인이나 어른에게 하
었다는 것이다.

위의 사건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로는 계층·지역·이념간의 갈등 중 계층간의 갈등 그중에서도
어른과 젊은이간에 심각한 갈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
아주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동영상이나 언론을 통
하여 공론화 된 것은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폭발하지 않은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 세대의 젊은이 세대간의 윤리개념과 사고의 차이 즉 장유
유서(長幼有序) 오분의 히나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음의 효(孝)와 공경에 대하여 큰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70·80년대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열차표
나 버스표를 구하기 위해 밤을 세워 겨우 어렵게 구하더라도,
입석표를 구매 이동하시는 노인이나 어른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좌석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흔한 광경이었다. 지금도 이
러한 광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버스에서도 앉아가
는 젊은이들이 서있는 노인이나 어른에게 좌석을 양보하고, 가
방이나 짐을 들어주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그때는 노약자석이
따로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카네기스콜랜드 태생의 미국의 실업가
(1835-1919)로 카네기 재강화사를 설립하여 미국의 재강업계를
지배하였을. 실업계에서 은퇴 후, 여생을 자선사업에 봉사했음(孝)
어머니에게 배운 한 젊은이의 배려·공경·친절의 태도가 그 젊
은이에게 가져다 준 성공과 행복의 이يا기를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 주고자 한
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세차
게 내렸다. 길에 있던 사람들은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온몸이 흠뻑 젖은 다리가 불
편한 한 할머니가 비를 거리며 벽화점 안으로 들
어왔다. 이 때 필립이라는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말했다. “드와드필 일이라도 있
습니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편
찮아요, 여기서 잠깐 비를 피하고 갈 거예요.” 할
머니는 날의 건물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나 미안한 마음에 벽화점
을 들어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던 필립이 또 다가
와서 말했다. “할머니,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의자
를 하나 가져다 드릴테니 그냥 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두시간 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다. 할머니는 다시 한 번 필립에게 고맙다
는 인사를 하고는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불편한 다
리를 이끌고 비를 거리며 비전 후의 무지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
다. 몇 달 후 이 벽화점의 사장 제임스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바
로 그 할머니가 쓴 것이었다. 그녀는 놀랄지도 당시 미국의 여만
장자였던 장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다. 편지에는 필립을 스코틀
랜드로 파견하여 한 상무를 장식할 주문서를 받아가게 할 것과,
그에게 카네기 소속 대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할 사무용품의 구매
를 맡기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벽화점의 사장인 제임스는 놀
라움을 금치 못했다. 객산해 보니 이 편지 한 통이 가져다줄 수익
은 벽화점의 2년 이윤 총액을 웃돌았다. 제임스는 바로 필립을
회사의 이사회에 추천했다. 필립이 짐을 꾸려 스코틀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이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는 이미 벽화점의 중역
이 되어 있었다. 몇 년 동안 필립은 자신이 늘 보여준 선의와 공
심함으로 카네기의 손과 발이 되었다. 필립은 카네기에게 공음
세워 이윤을 땀졌으며, 100곳에 달하는 전국의 도서관에 800만
권의 도서를 기증하여 많은 젊은이에게 귀감이 되었다.

필립이 카네기 어머니에게 보여준 배려·공경·친절의 태도
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지 예전에 비해 빈도가 줄어들고 노인이나 어른들도 가끔 우리
한 요구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러한 이유는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민주화 요구의 극대화인 서구식 사회체제 및 사고의 도입, 급속한 경제발전, 무슨 수단으로라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팽배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윤리체계가 급격히 붕괴된 것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공경이나 장유유서에 대한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는 낡은 생각이라는 개념이 젊은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머리만 잘 굴리고 진퇴만 많은 지식인만 만들어 무슨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것다는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각성, 진반적인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및 사회윤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시스템의 변화업이는 선진사회가 되기는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시스템 변화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인성교육과 효 교육을 통하여 계층·지역·이념간의 조화 평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도시화·경제화·국제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가정교육과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하여 노인과 어른을 모르는 비범없는 청소년들을 양산하여 비상식적·비양심적 행동을 하게끔 초래하였으며, 기분이 달 된 교육과 사회시스템은 국가의 존망과 미래의 발전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교육·사회시스템을 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립과 같이 노인과 어른들에게 배려·공경·친절의 마음을 가진 즉 효의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해 지는 사회가 되어, 높은 국격을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길 염원해 본다.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1. 일시 : 2011년 5월 14일(土) 10:00
2. 장소 : 서울교육대학(서초동)
3. 참가인원 : 동창회
4. 경기 : ① 단체전 1팀 3명 총호선
 구상
 ① 학과대표 (1명은 韓大 재학생 리)
 ② 직장대표 (中·高·大學 또는 회사)
 ③ 임의조 (친구 또는 동호인 카리)
 ② 개인전
 ① 최강전 재학생, 졸업생 총호선
 ② A組戰 2~3급 총호선
 ③ B組戰 4~5급 총호선
 ④ C組戰 6~7급 총호선
 ≡ - 단체전과 개인전은 중복출전 불가
 - 예선전은 리그, 본선은 토너먼트로
5. 사상은 단체전 및 개인전 조별로 1,2,3위
6. 참가비 : 10,000원
7. 신청방법 : 아래 제과로 입금 후 주소, 성명, 학과, 입학년도, Fax, E-mail 등으로 연락바람.
(하나은행) 221-990158-88607 변주선
8. 신청마감 : 2011년 4월 22일(금)
9. 참가자 진원에게 中食 및紀念品이 제공됨.
10. 주최 : 韓大, 韓大, 韓大 同窓會 共同
 주관 : 韓大 同窓會
11. 후원 : 협찬을 기다립니다.
12. 연락처 : Tel: 02-6399-6500
 Fax: 02-6399-6501
 E-mail: snwms@hanmail.net

후원

- 前副團長 - 54-진 선천대 총장 별세(11.14)
 中副團長 - 55-경남대 명예교수, 수필가) 별세(10.12.7)
 金華永(敎) - 57-삼통 석유 회장) 모친상(11.1.5)
 林弘造(生) - 59-영제교육출판사 대표) 병모상(11.1.5)
 申一欽(化) - 66-전 구립교 교장) 병모상(10.12.13)
 李柄好(英) - 70-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모친상(11.1.8)
 蔡熙權(化) - 76-서울대 화학교육과 교수) 별세(10.12.6)
 林炳憲(敎) - 78-한국외원대 교수) 병모상(11.12.0)
 盧英實(敎) - 80) 모친상(11.1.20)
 김준연(서울대 명예교수) 별세(10.12.3)
 은혜경(교육학 박사, 04일) 시부상(10.12.29)
 임무수(석사 84졸, 한국어성경발전) 모친상(10.11.9)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천재교육의 **최종**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선 동문들께서는 역수의 과대에 재담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10. 11. 11. ~ 2011. 1. 31.)

이희자(가)·60 50만원 김영순(생)·62 50만원

동창회비를 납부합시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 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協성회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 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부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여금주 : 변주선)

회비내역

회 지부유원	: 100,000원 이상
회 회 장	: 2,000,000원 이상
회 부 회 장	: 500,000원 이상
회 감 사	: 300,000원 이상
회 상임이사	: 200,000원 이상
회 이 사	: 50,000원 이상
회 일반회비	: 20,000원 이상
회 명예회비(180)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10. 11. 11. ~ 2011. 1. 31.)

회장단 · 임원회비

윤용학(도)·부회장 50만원 김형기(문)·부회장 50만원

평생회비(20만원)

이혜성(국)·58 유지훈(불)·68 리형기(체)·71)
정태방(학)·58 이병순(도)·69

이사회비

(국어)	비두태(50)	5만원	(생물)	이정태(55)	5만원	
인준현(8)	5만원	(역사)	김영순(82)	10만원		
김상준(48)	5만원	박남기(50)	5만원	오건주(78)	5만원	
김평환(90)	10만원	김홍삼(73)	5만원	(체육)		
(영어)	장지혁(80)	10만원	(지리)	정경주(89)	10만원	
이영주(52)	5만원	(사회)	최형준(80)	5만원	성영미상	10만원
(사회)	최형준(80)	5만원	나병삼(84)	5만원		
정형규(53)	10만원					

일반회비

서울대사대부중(36명) 72만원	조기석(88)	노정준(90)	정윤경(영)4	남한서(50)	2만원	이정근(80)	2만원	
정윤희(74)	김정규(89)	최승욱(가)78)	박리원(영)9)	유재호(70)	2만원	(영어)		
박경미(89)	문대영(가)89)	남 윤(가)98)	(경사)	(교학)		김순신(50)	2만원	
이수생(국)80)	김동환(가)89)	서정아(불)88)	게도혜(여)239)	2만원	신철지(80)	3만원	백영호(89)	2만원
노미숙(국)87)	김성직(역)89)	김주혜(영)94)	(경어사)		(국어)		(독어)	
이재홍(국)87)	김정연(역)90)	신현주(가)89)	오진경(강)39)	2만원	황기탁(40)	2만원	이상경(85)	4만원
김나영(국)88)	이수희(사)90)	김종현(가)90)	김은주(강)49)	3만원	서부원(53)	2만원	김상현(89)	2만원
김경림(국)90)	김수미(수)87)	정 준(가)89)	(예과)		이현택(53)	2만원	(사회)	
김희희(국)90)	이경민(수)90)	박연희(가)89)	장유순(문)48)	2만원	이대규(57)	2만원	박성근(52)	2만원
정말순(국)90)	신지영(수)90)	고연아(영)90)	(교학)		박현도(58)	2만원	서민경(52)	2만원
김도건(국)88)	홍은재(수)90)	이현주(영)89)	유봉호(국)8)	2만원	장규생(59)	3만원	이호성(57)	2만원
	정수진(수)90)	박성근(영)89)	이태준(8)	2만원	권정순(50)	2만원		

(역사)	(지리)	(수학)	정부길(59)	2만원	최계숙(52)	2만원	(체육)	
박장순(52)	3만원 황사근(51)	2만원 최홍진(49)	3만원 김사원(78)	3만원	홍인기(54)	2만원	홍운표(54)	3만원
이종화(52)	2만원 김동복(57)	3만원 홍정화(55)	3만원 안정훈(39)	3만원	장산사(59)	2만원	허영준(59)	2만원
이남구(54)	2만원 최정렬(62)	3만원 이상규(56)	3만원 (화학)		곽동순(63)	3만원	박종서(57)	2만원
이세현(55)	2만원 강아라(96)	3만원 이덕수(81)	3만원 김상옥(47)	2만원	구영주(72)	2만원	이강철(57)	2만원
이찬도(55)	2만원 이종성(02)	3만원 이종연(63)	3만원 최성인(53)	2만원	(가정)		윤익모(62)	2만원
강장희(57)	2만원 (올레)	(올레)	(생물)		김순녀(59)	2만원	유정재(70)	2만원
신형사(57)	2만원 이가원(83)	3만원 강 옥(50)	2만원 정근홍(49)	2만원	이희주(59)	3만원	이상봉(03)	2만원
강정사(59)	2만원	양일사(57)	3만원 김아름(50)	3만원	김옥연(57)	2만원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 동창회비 납부 안내

지난해 5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따라 동창회 회계연도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동창회비 납부기간도 금년 1월부터임을 공고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 일시 : 2011년 3월 14일(月)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차르트홀
- 회비 : 20,000원

* 준비관계로 꼭 사전 예약을 바랍니다.



2011년 동문 친목 등산대회 개최

2011년 친목등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 학교의 직장, 동창회별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4월 9일(土)
- 집합시간 : 오전 10시 (점심시간 집합 : 12시 30분)
- 집합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뒷편 잔디밭
- 신청마감 : 3월 25일(금)
- 참 가 비 : 10,000원 (당일 납부)
- 참가사항 : 등산대회는 A, B조로 구분함.
(A조는 본격적으로 등산하실 분, B조는 쉬운 코스를 등산하실 분)
중식과 기념품은 본회에서 준비함.
준비 관계로 참가 여부를 사전에 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전화> 02)6399-6500
- 교 통 편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하차(4번 출구) - LG주유소 뒷편에서 마을버스 02번을 타고 교수회관 입구 하차
- ※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작은 따뜻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화장지, 영수증 등을 찢기 쉽게 해주는 '질취선'.
2백여 년 전 한 우체국에서
우표수배 장을 자르느라 손에 힘이 든 여직원이 기여워
동료가 바늘로 우표에 구멍을 내준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구부러지는 '썩름빨대'도 작은 따뜻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픈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한 엄마가
고무호스의 주름을 보고 빨대에 응용한 것이죠.

천재교육의 나눔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점자교재지원, 장학사업, 기부사업, 사회공헌활동...
그러나이 작은 배려로
책이 없는 아이가 배우고 싶은 욕심을 채운다면,
절망했던 한 아이가 내일의 꿈을 키운다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따뜻하게~
천재교육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의 힘! 실현의 힘!"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천재교육의 다짐입니다!

· (주)서울지정통도교회 · 이명학교 · 한국청소년문화의집 · SBS 현영로프 송정 · 김지교재 제작을 위한 레터 지원 · 굿데이박스 · 한국어학원 · 이룸디자이너